

TDB 경기동향조사(전국) - 2023년 7월조사 -

2023년 8월 3일
 주식회사데이코쿠데이터뱅크 정보통괄부
<https://www.tdb.co.jp>
 경기동향온라인 <https://www.tdb-di.com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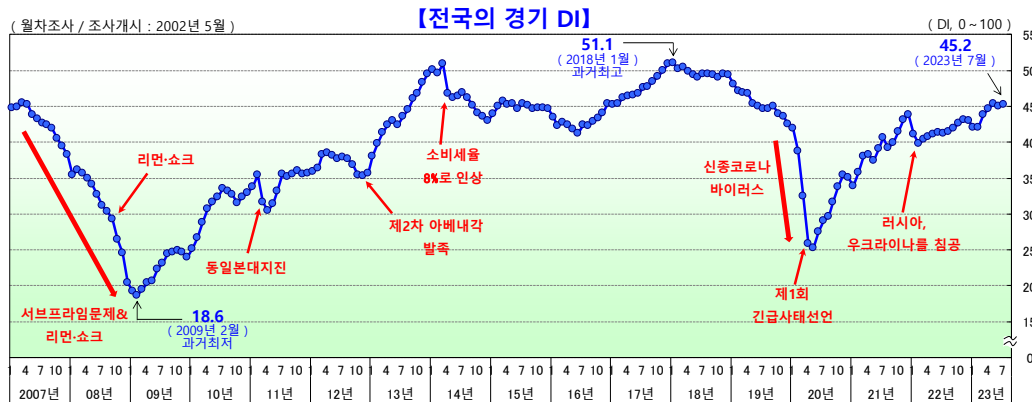
경기는 소폭개선, 계절 상품 소비가 지탱

~ 인파 증가 및 무더위가 플러스 요인이나 인플레 및 인력부족이 하락에 요인으로 ~

(조사대상 2만 7,768사, 유효회답 1만 1,265사, 회답율 40.6%, 조사개시 2002년 5월)

조사결과의 포인트

- 2023년 7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.2포인트 증가한 45.2로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. 경기는 인파의 증가 및 무더위 등으로 계절상품 소비가 지탱하여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전환되었다. 향후의 국내경기는 설비투자 확대 및 대면 서비스를 베이스로 완만한 상향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.
-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인파 증가와 함께 대면 서비스도 회복이 나타난 한편 전세버스 및 택시 수요가 활발해져 10개 업계 중 6개 업계에서 개선되었다.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개선, 3개 지역이 악화되었다. 반도체 부족 완화로 인한 생산능력 향상 및 일부지역에서의 여름 관광관련 수요 확대가 상승 요인이 되었다. 한편 『큐슈』를 중심으로 많은 비 등의 기상악화는 악재가 되었다. 규모별로는 「대기업」「중소기업」이 2개월만에 개선되었으나 「소규모기업」은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.
- 주유소의 경기 DI는 1.0포인트 감소한 35.9로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. 또한 휘발유는 7월말까지 10주 연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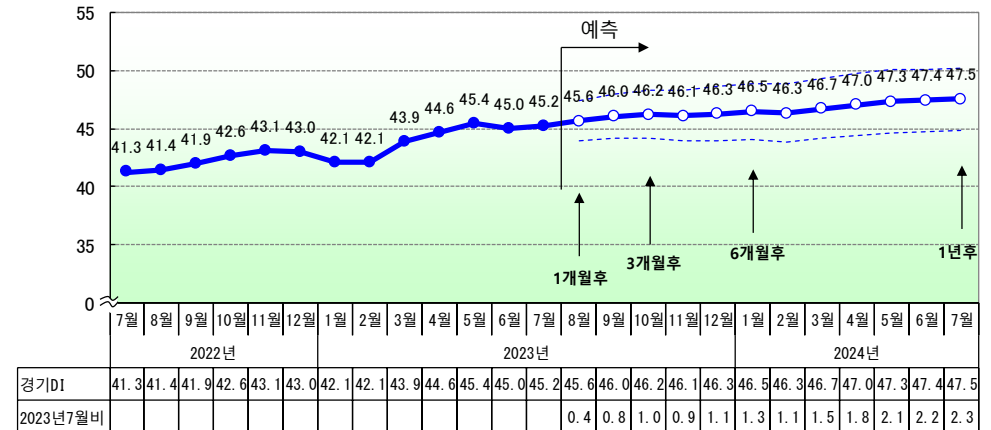
< 2023년 7월의 동향 : 소폭개선 >

2023년 7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.2포인트 증가한 45.2로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. 경기는 인파의 증가 및 무더위 등으로 계절상품 소비가 지탱하여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전환되었다.

여름 시즌에 들어가며 인파 증가와 함께 인바운드 및 레저 수요가 활발해진 한편 외식 기회의 확대로 주점DI도 2개월 만에 회복하였다. 거기다 무더위로 인한 관련상품으로의 니즈가 고조되는 등 계절 수요가 호재로 작용하였다. 또한 반도체 부족이 완화됨과 함께 자동차 생산회복 등도 체감경기를 상승시켰다. 관광산업에서는 가을 이벤트 및 내년 봄을 위한 예약이 호조로 추이하였다. 한편 생활필수품의 가격상승 외에 전기요금 및 휘발유·경유를 포함하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, 장기화되는 인력 부족, 큰비 등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.

< 향후의 전망 : 완만한 상향경향으로 추이 >

향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하여 경제·사회 시스템이 재구축되어 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상승의 확산 및 소비 마인드 개선, 인바운드 확대 등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. 또한 DX 추진 및 탈(脫)탄소화 등과 관련된 설비투자의 확대가 예상된다. 한편 생활필수품 및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 등으로 보복 소비가 확산이 나타나는 가운데 인력부족,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우려된다. 단, 금융완화정책 운용의 유연화로 국내외경제에 미칠 영향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. 향후의 국내경기는 설비투자 확대 및 대면 서비스를 베이스로 완만한 상향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.



※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. 점선은 예측치의 폭(예측구간)을 나타내고 있다.